



법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



〈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 법〉

이향안 / 현암주니어

우리나라 최초의 법이 무엇일까요? 바로 고조선의 8조법이에요. 해서는 안 되는 여덟 가지의 죄를 법으로 만들어 만들었어요. 단순했던 8조법을 시작으로 고구려의 율령, 고려의 고려율, 조선의 경국대전 등을 거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답니다. 법은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. 지금까지의 법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.

안소연 / 천개의바람

〈여기는 바로섬 법을 배웁니다〉

바로섬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. 똑딱 아저씨에게 의자 값을 돌려달라고 하는 호밀 씨, 방파제 법 때문에 집을 잃게 된 도끼 씨, 곰곰 할머니의 방아 찰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버터 아저씨까지! 모두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있어요. 다양한 사건들이 생기는 바로섬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

〈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〉

신주영 / 꿈초

선녀와 나무꾼, 심청전, 흥부전 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이야기입니다. 옛이야기들을 법과 연결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. 선녀의 옷을 훔친 나무꾼의 행동은 법적으로 범죄에 해당하고, 흥부의 뭇까지 재산을 상속받은 놀부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지요. 이제부터 옛이야기로 만나는 흥미진진한 법 이야기를 만나볼까요?

예영 / 주니어김영사

〈어린이를 위한 법이란 무엇인가〉

동넵이네 모둠은 '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가치' 중 모든 모둠이 말지 않으려는 주제인 법을 맡게 됐어요. 변호사인 동넵이네 삼촌와 함께 법에 대해 알아가는 아이들은 법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. 시험이 없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아이들은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싶어 하네요. 과연 아이들이 생각한 법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?

